

Galaxy Note7 리콜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당분간 위축될 전망

- ◆ Galaxy Note7 리콜 영향은 삼성전자 및 관련 서플라이체인인 하반기 실적에 부정적
- ◆ 애플, LG전자의 반사 수혜는 가능하나 제한적, 프리미엄 시장 위축으로 인한 여파에 주목
- ◆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조기 출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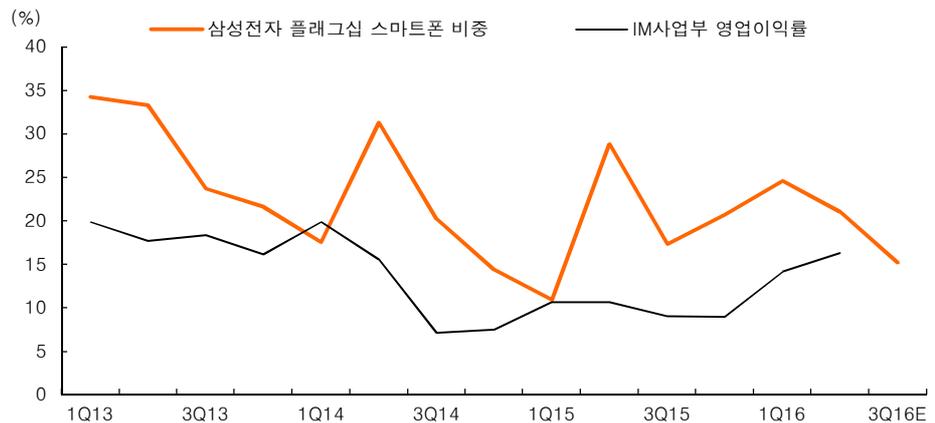
▶ Galaxy Note7 리콜은 스마트폰 서플라인 전체에 악영향,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위축

- 삼성전자의 Galaxy Note7 리콜 발표 이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등 각국에서 사용중단 권고 및 규제가 이뤄짐에 따라 Galaxy Note7 결함 사태 영향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이슈로 인한 영향은 1) 삼성전자 IM사업부 및 전사 실적 감소, 2) 삼성전자 스마트폰 서플라이체인인 실적 우려 확대, 3)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위축 속에 iPhone7, V20 등 하반기 경쟁 모델의 제한적인 반사 수혜, 4) Galaxy S8 조기 출시 추진 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1) Galaxy Note7 출시 시점만 하더라도 전년도의 950만대 대비 40% 전후의 출하량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내외 북미를 중심으로 초기 판매가 시작되었던 시점에 250만대 규모의 전량 리콜이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판매 재개 시점을 가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2016년 하반기 Galaxy Note7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3월에 출시된 Galaxy S7/S7 Edge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 Galaxy Note7 단일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2016년 4분기 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중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할 우려가 존재한다. 2014년 Galaxy S5의 판매부진 및 채널재고 누적으로 인한 IM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하반기에 7%대로 급락했으며, 3Q14부터 1Q15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중은 20.2%에서 10.9%까지 감소한 바 있다.
- 2)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물동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보급형 스마트폰 비중이 매분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의 실적은 대부분 프리미엄 스마트폰 물동 증가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Galaxy Note7 출하량 급감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높은 관련 서플라이체인인 하반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카메라모듈, HDI, FPCB, 수동부품 등 주요 범용 부품의 사양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부터 판가하락에 대한 압력이 상당 부분 높아졌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판매 중단이 주요 부품업체들의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 3) 9월 16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애플의 iPhone7/7+는 하반기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Galaxy Note7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Galaxy Note7의 리콜 및 판매중단으로 인해 연간 아이폰의 출하량 감소율은 KB투자증권의 기존 추정치였던 -10.5%에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분기 Galaxy S7/S7 Edge 판매호조로 북미 시장에서 8개 분기만에 북미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32.7%)를 달성했으며, 스마트폰 ASP 역시 두 분기 연속 상승한 바 있다. 따라서 북미 주요 이통사들의 프로모션 리스트에서 Galaxy Note7이 빠져 있는 상황으로 인해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경쟁 중인 애플과 LG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특히 스마트폰 ASP가 높은 지역 (북미, 서유럽) 내 주요 국가에서는 애플의 시장점유율 개선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혁신 없는 아이폰을 통해 전년 동기의 출하량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Galaxy Note7 리콜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프리미엄 시장의 위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성수기에 진입한 글로벌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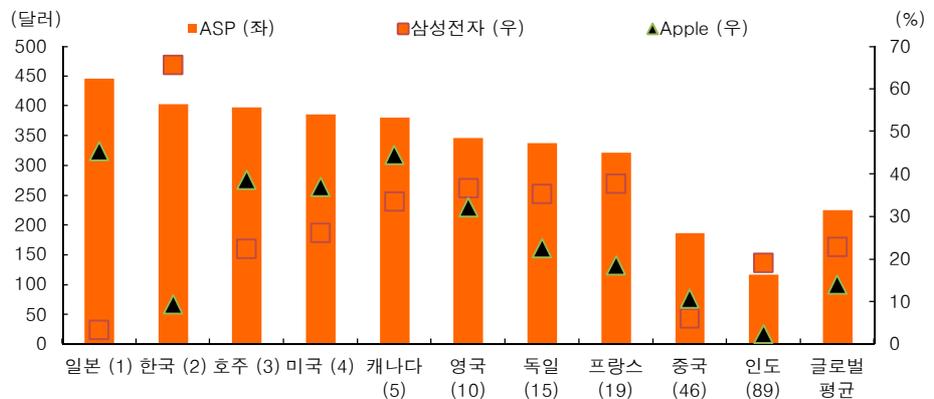
- 4) Galaxy S8이 조기 출시될 가능성은 이번 Galaxy Note7 리콜 사건으로 인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가 2017년 1분기 말까지 미뤄진다면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선진국과 신흥국,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IM사업부의 수익성 악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Galaxy Note7 판매 재개 여부와는 상관없이 완성도 높은 플래그십 모델의 조기 출시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삼성전자 서플라이체인 실적 부진 우려도 연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침체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수요 자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제품 경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며, Memory Contents증가, VR연동 및 폼팩터 변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3D NAND, OLED 투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한기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현재 시점에 오히려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1.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중 및 IM사업부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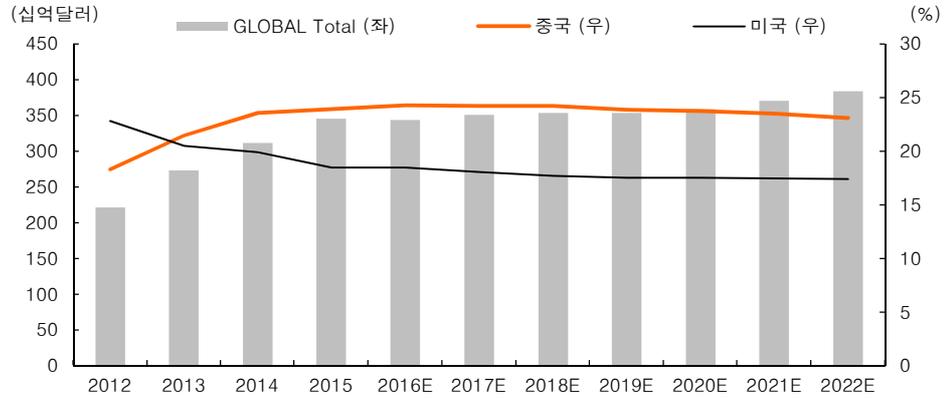
자료: Strategy Analytics, Gartner, KB투자증권 추정

그림 2. 주요 국가별 2016년 스마트폰 예상 ASP 및 삼성, 애플 시장점유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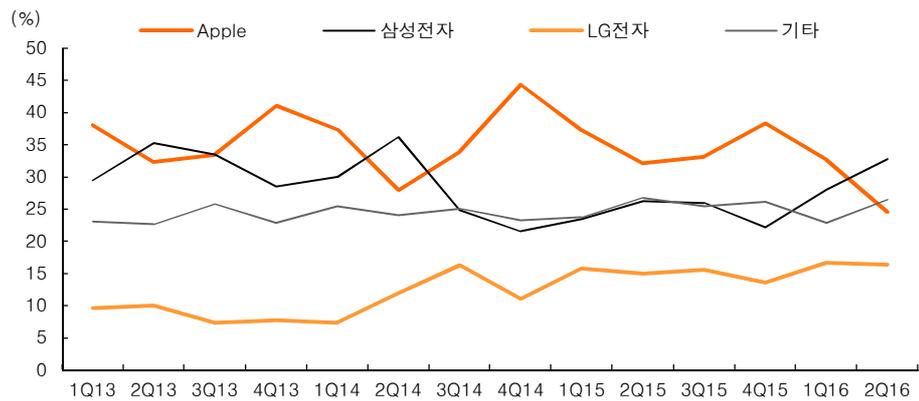
자료: Strategy Analytics, Gartner, KB투자증권

그림 3.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중국, 미국 시장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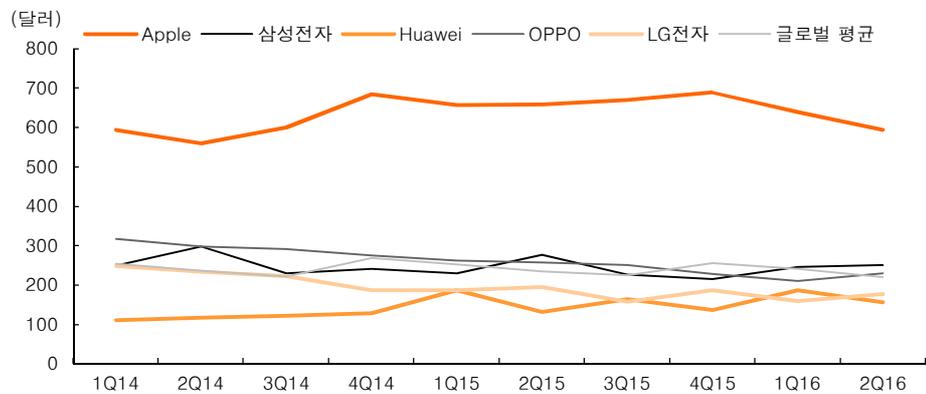
자료: Strategy Analytics, Gartner, KB투자증권

그림 4.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 2Q16 삼성전자 8분기만에 1위 탈환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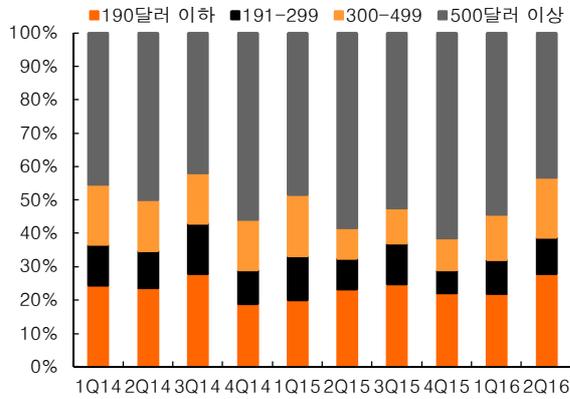
자료: Strategy Analytics, KB투자증권

그림 5.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 업체 ASP 추이: Galaxy S7 판매 호조로 삼성 스마트폰 ASP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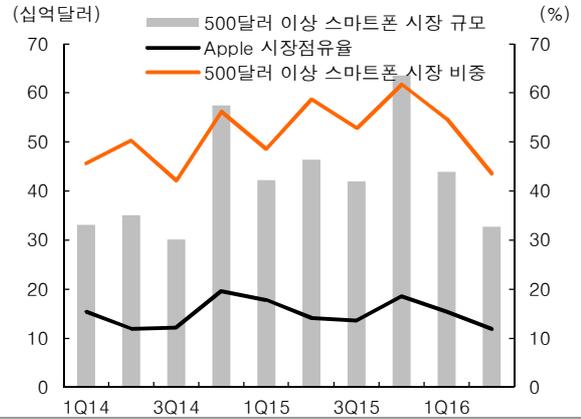
자료: Strategy Analytics, KB투자증권

그림 6. 가격대별 스마트폰 시장 비중 추이



자료: Strategy Analytics, KB투자증권

그림 7. 5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시장 비중 및 Apple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Strategy Analytics, KB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발간일 현재 동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